

윌비스 한림법학원 30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합격한 지OO 평가사입니다.

제 수험기간은 4년차 이구요.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고 개별스터디까지 하면서 본격적인 수험기간을 지낸 것은 2018년도와 2019년도입니다. 이전에는 학교 다니면서 학원스터디로 공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 수험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공감될 것 같습니다.

<<1차 공부 방법>>

1차는 객관식형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암기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많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 전에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로 꼭 자신의 암기정도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수업과 병행해서 1차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인강으로 대체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1차 시험 과목별로 인강으로 회독수를 올리시고 모의고사는 시험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학원에서 푸시는걸 추천합니다.

<<2차 공부방법>>

<법전의 중요성>

실무와 법규, 이론 모두 법전의 내용이 기본이 됩니다. 각 과목별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법이나 조문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의의나 내용, 심화내용은 법의 해석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떤 법조문에서 시작된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년차가 될수록 법전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여 등한시하게 되는 성향이 있으나 이를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

2년차 분들에게 실무가 낯설고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45점을 목표로 하고, 상대적으로 외운대로 쓸 수 있는 이론이나 법규과목에서 고득점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쟁점의 양이 많다고 여겨지는 여지훈 평가사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많은 문제를 스터디로 연습을 하면 사소한 쟁점까지도 눈에 잘 보이게 되고 답안지에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도 생겨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관련쟁점들을 유기적으로 한번에 정리해주셔서 평소에 헛갈렸던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어 문제풀이 연습뿐만 아니라 개념정리까지 다시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3,4기에는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지훈 평가사님이 모든 답지를 직접채점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1-2기 스터디에서는 여지훈 평가사님이 답지 내용과 형식에 꼼꼼하게 코멘트도 달아주시기 때문에 자신만의 형식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신 분들은 1-2기부터 가서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론>

한림 이론은 2기까지는 기출문제 위주로 진행되어 다년차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아는건데..’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재편집하여 한 두가지 쟁점에 대해 100점을 만

들어주셔서 관련쟁점에 대해 기출성향도 파악할 수 있으며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3기부터는 기출과 새로운 문제가 같이 출제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정민 평가사님의 이론답지 스타일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모범답안을 꼼꼼하게 읽고 글 쓰는 스킬을 따라하려고 하여 답안을 임팩트있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규>

저는 이현진 평가사님의 스터디를 수강하였습니다. 이현진 평가사님이 스터디문제를 출제하면서 행시, 변시,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관련문제를 같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 안 풀리면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개별스터디원들과 같이 해결하고 문제스타일은 다르게 출제되었지만 최근에 학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림스터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 법규는 광대한 내용중에서 답지에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 것인지 수험생입장에서 고르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16페이지 내에 모범답안을 딱 정리해주셔서 관련쟁점에 대해 외워야할 것이 특정되서 맘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슬럼프 극복방법 및 휴식>>

공부를 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을 때는, 저는 모범답안 필사를 하였습니다. 필사를 하면 슬럼프 기간에 공부를 쉬어서 공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적고 머리는 휴식을 취할수 있어서 세과목 모두 이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토요일 스터디가 끝난 후 격렬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하루쯤 마음껏 늦잠을 자기위해 알람을 절대 설정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 맛있는 식사를 여유롭게 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하지 않으며 여유를 가졌습니다. 일주일 연속 아침 개별스터디와 학원스터디, 자습을 계속적으로 하면 이후에 공부하기 싫은 슬럼프 기간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1기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불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점점 깊이 있는 수험생활이 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차로 입문하신분이나 다년차이신 분 모두 합격하실 때 까지 수험생활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실제 현업에 나가서 모두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능동적인 수험생활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스터디점수에 상처를 받게 되시겠지만 시험 전까지는 반드시 완성시켜서 터트리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스터디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실제시험에서는 합격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스터디 점수가 낮다고 하여 수험생활에서 기운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